

제1호 (장간호)

발행일: 서기 2010년 3월 1일  
 창간일: 서기 2010년 3월 1일  
 구독신청: (043) 218-2158  
 F A X: (043) 212-2158  
 H P: 016-482-3158

安東金氏  
 按察使公派宗會報

발행인: 김영만  
 편집인: 김태훈  
 발행처: 안동김씨안렴사공파종회  
 총책형원: 오창용 상리 23  
 인쇄인: 김성희

發刊辭



안동김씨안렴사공파종회 회장 김영만

안동김씨 대종회보를 발간하기 지면 100호를 넘었고 각 파종회에서 도 종회보를 발간하여 선조님들의 넋을 기리고 숭조사상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있으나 안렴사공파종회가 차일 파일 미루다가 오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008년 수도권총친회가 구성되고 한때 어려웠던 종회재정이 원활해 지면서 늦게나마 "안동김씨안렴사공파종회보"를 발간하게되어 모든 종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경하에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중심안렴사공 김사현(金士顯)할아버지께서는

“안동김씨안렴사공파종회보” 발간

고려가 망하자 모든 벼슬을 버리고 이국 도산골짜기(총책 형원군 오창용 도정리)로 오셔서 피붙이를 짓고 땅국의 한을 달래시면서 1405년 71세로 임종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후손들이 지금도 가슴이 메어지는것은 할아버지의 나이 담긴 유물 하나 전해져 오신것이 없었더라면 안타까운 심정을 여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종회보는 우리를 세대에서 선조님들의 공훈과 유덕을 숭모현안하며 종친간의 상호친목화합을 도모할수있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당대는 물론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조상숭배의 지침이되고 크나큰 교훈이 되게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종인 모두가 참여하여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안동김씨에 대한 대소사의 소식들을 빠짐없이 편집부에 전해주고 편집부에서는 현지에 임하여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종회보를 발간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몇가지 예시를 하면 ① 각 지파의 친척격,승진,전보,리임,자람사건기업가등 ② 각종단체장,시군구,국회의원출마 및 당선 ③ 각종수상,표창 및 서훈사,사담,정려등 선조현양사업등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우리 종회보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편집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렴사할아버지의 후손,리임 모두가 의무적으로 구독하여야 할 것 임

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인들의 주소지를 빠짐없이 파악하는것이 급선무요로 지파별 책임자들이 명단을 작성하여 본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보는 안렴사공할아버지 후손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모임체가 아닙니다. 한 핏줄로 600여년간 이어온 혈통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우리들의 가문을 온 나라에 빛나게 합시다. 앞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공회보 발간을 수고해 주신 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안렴사공종회보가 지식으로 발간되고 종인들이 필독하여 지식의 보고(寶庫)가 되어주시 바랍니다. 2010. 3. <안동김씨안렴사공파종회>김영만

祝辭

종친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합의를 이끄는 토론의 마당으로 활용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남용

전국에 계신 종친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김씨대종회장 남용입니다. 이번 안렴사공파에서 파종회보를 발간한다 하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안동김씨는 총출몰할아버님 이래로 삼한강쪽으로 세인의 칭송을 듣고 있고 고려의 충신으로 명성을 떨치신 안렴사공(諱士顯) 후손인 안렴사공파종회에서 종의 발전을 위하여 파종회보를 발행하게 된 것은 더욱 뜻깊은 일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고, 널리 알릴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 알려주는 소식지로서의 건실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상의 유덕을 숭모현안함은

물론 우리의 옛것을 알리어 거울로 삼을수 있도록 하고 종친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합의를 이끄는 토론의 마당으로 활용수 있는 매체로서의 기능에 손색이 없도록 가꾸어 나아가길 바랍니다. 너와 나를 떠나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때 서로 미루지 말고, 밀려지 아니하며 평상심으로 다같이 노력한다면 모든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인내하며 봉사의 정신으로 노력합시다. 안렴사공파종회 임원 여러분의 열성에 다대한 믿 감사드립니다. 종친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2010. 3. .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남용

안렴사공파 총회개최



지난 2월 19일 우리 안동김씨안렴사공파 총회가 총책 형원군 오창용 소재 세마을공고 대회의실에서 70여명의 종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총서 사무국장의 성원보고, 개회 선언, 국민의회, 선조영령에 대한 묵념, 영만 파종회장의 인사소개가 있는 다음 파종회장의 인사말과 남용 안동김씨대종회장의 축사, 태훈 수도권총친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영만 파종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에도 지난 일년동안 운영체 여러분의 협조로 파종회장이 맡은 것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계속 협조를 부탁하면서 아울러 대종의 기쁨으로 기도로 적극협조를 당부하였고 남용 대종회장은 축사에서 종친

여러분의 협조에 항상 감사한다며 대종회 기금모으기에 적극 협조를 호소하였으며 또한 태훈 수도권총친회장은 인사말에서 파종회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강구하여 파종회를 활성화 하지도 강조했다. 이어 감사보고가 있었고 2009년도 결산과 2010년도 예산안을 심정 참여 종인 전원 참석으로 가결 및 승인하였다. 기타 회의 사항으로 파종회보를 파종회 주관으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날 친조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000 수도권총회
- 100.000 대종회, 영만, 운회, 선원, 동원, 태선, 경희, 운회
- 50.000 병희, 태호, 태운

총액 1,150,000원  
 화환대공 진전군총친회

회보의 원고를 보내주시시오. 내용은 심조에 대한 것 이면 더욱 좋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필한 것 이면 상관 없습니다. 또한 형친하심분 연락주시면 성상것도와 드립니다.

회보 원고접수

보낼곳: 안렴사공파종회  
 총책형원군 오창용상리 23  
 TEL: (043) 218-2158  
 FAX: (043) 212-2158

## 오은안렴사공 김사렴전

## 先祖明訓

子係果賢 國家自用之  
 人손이 현명하면 國家에서 스스로  
 用하리라  
 勿不賢雖得之可保乎也  
 자손이 현명하지 못하면 비록  
 얻어도 이를 勤當하지 못하니

(貞簡公詩 永覽)



(영모재 전경 (청인 오장 모정리))

공께서는 안동인 삼락공 엄경 휘 김방경(金方慶)의 현손이며 부직사사 휘 천(廉)의 넷째 아들로 출생하시었다. 이름은 사렴(士廉) 자는 공직(公直) 호는 오은(梧隱)이다.

고려 공민왕때에 일찍이 등과 하여 여러번 승진하며 정당문학, 분하시달을 역임하면서 면계직간(面啓直諫)하는데 유명하였다. 고려말 혁명당시에 안렴사 벼슬에 그쳤나, 학문에 뜻을 두어 글을 잘 하시고 용모 풍채도 좋고 위엄이 있으며 기적(節操)과 도량이 크고 국정에 성실하여 국민을 어루만지는 데 일념을 두었다. 젊은 정진생과 묵은 아신생으로 더불어 유림의 친구 이시며 서로 직간 잘 하기로 유명했다. 1330년(명 홍무23, 공양왕2년)에 이성계 혁명 전초작업으로 판관하부사 이색을 고신(構新)하락(下獄)하고 대간전계법(臺諫前啓法)을 폐지시켜 일과 신하 사이에 대화를 두절시키고 공을 호서(興西)로 안렴사로 조진(趙進)은 그형 조준(趙俊)이 이성계와 혁명모의하는 것을 저지하는 관계로 임난(臨難)조진(趙進)으로 1392년(공양왕4년)에 내정을 간섭하러 지방으로 내려보냈다. 이색은 사출사직(‘F’脚)의 방법을 써서 칼피를 못잡게 하였고 정종주는 병마사(兵馬使) 이성계의 종사관으로 1364년 여진군(女眞軍)을 평정하였고 1380년에 이성계를 따라 운봉(雲峰)이 왜구를 저 없애고 1389년에 이성계와 공양왕을 세우는 데 협찬한 것으로 보아 심복인의 한 사람

으로 알고 혁명 하는데 힘쓰고(協機)하기를 바랐으나 끝내 공양왕을 지지하다가 이방원(李芳遠-太宗)의 문재 조영규(趙英圭)에게 피살당하였다. 그의 죽음을 들은 공께서는 임지(任地)인 호서 침주 북쪽 근근으로 은퇴하고 조진을 붙여가 파친 관안산에 은이 하였다. 공께서는 일련단신으로 두 임금을 섬기게 함치 않고 이성계 침주(踐州)한후 좌사간 벼슬을 주어 친서를 보내어 누차 불러오나 나가지 아니하니 공의 이후 개국공신이며 정사공 휘 사렴(士廉)을 보내어 임조께 하라는 명을 받들고 오근까지 올 때 타고온 가마(轎)에서 그 아우가 나오기 전에 가마 휘장사이로 손을 디밀어 손이나 만져보자고 하며 은잡고 하는 말이 가는 길이면 살리고 의지가 다르지만 동기혈육이야 다르라 하고 가마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우를 불러 보내고 말없이 도산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고 민객을 들이지 아니하고 한양쪽으로는 향하여 앉지도 않고 자취를 감추어 회미하게 했다. 임종할 때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고려 왕조에 오랫동안 섬겨오던 신하로 나라를 볼줄지 못하였고 또 나라가 망해도 나라와 같이 순직을 못했으니 나는 친하의 죄인이라 어찌 죽어서 지하에 가서 선왕과 선인을 뵈오리요. 죽거든 심산봉에 붙어 평충으로하여 묘의 표지가 너에게 하되 비석 같은 것을 세우지 말아서 누구의 표라고 지적할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러조에서 벼슬한 나의 자손은

이조에 나가서 벼슬하지 말아서 두 조령에서 두 임금을 섬기어 절의를 잃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1405년(연락2년, 태종9년, 乙酉) 壽71歲에 별세 하셨다. 그 후 유언에 좇아 그 아들 소원공 휘 약(濶)과 그 손자 지주사공 휘 우주(週周)까지도 3대가 이조에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평정한 몸이라고 자백함을 가지고 그 아우가 그 손자 역시 유언으로 평충하게 하며 3대가 내려 평강하니 러조에는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께는 효도를 다했것이다. 세칭 칠세할 종아 난 절의대끼라고 일러왔다.

이성계 등극후 정포은, 이목은, 조진, 남윤진 같은 분들은 국초에 모두 포종하고 두분은 70여인이 모두 비석까지도 세웠으나 유족 공 한분만이 이조 건국후 왕종(王統)으로 4세(太, 定, 太, 世) [註 世宗29년 正統甲子 知州事公 週周의 후계] 안렴사공 손자대까지 몇수로 3대 난수로 53년간 3대가 도산 산속에서 은거하여 이조에 벼슬치 아니하니 흠이 말릴 만 것으로 벼슬을 주자 하니 이태조가 그는 백수대 같은 파라고 하고 그냥 두라고 하였다.

어·송이효절모 소원, 지주사 2대가 평생 시묘사리를 한 셈이다. 그 후에도 자손이 공의 묘하에 있으면서 조령에 나아가 벼슬에 오를 제면이 서지 않고 황공스러워서 공의 죽은 때부터 출세하기 위하여 작조로 분산하여 지금과 같이 각

파를 형성한 것이다. 저·고 러혁명전에 신문에게도 난정(亂政)을 일으키지 마라고 주의를 촉구하였고 만조백관이 공의 직언으로 주의를 받치니 한 관원이 없어서 혁명대의 재산이 이조에 불꽃처럼 개국공신으로 또는 정사(定臺)공신으로 되며 한사자가 공의 사직을 말살시켜 찬수 하지 아니하였고 공에 대한 역대 사직도 산절되어 삼고하기 어려웠다. 다행이 서원유적 러사출항(麗史勝覽)과 유림들의 소장(叢狀) 등으로 전하여 가고 있다. 본 책에 수록한 작분장을 읽으면 대개 짐작이 갈 것이다. 후에 유림들이 유명평판(遺命平塚) 4차와 일련도산만고수양(一片山萬古昔蘭) 8차를 재목으로 삼아 시를 지어 충절을 찬양하였고 시사관(試士官)이 와서도 전기 재목(題目)으로 출제하여 준수(俊守)를 선발하였다. 1678년(숙종4년) 발의하여 1708년(숙종34년)에 선비들이 각각 출제하여 침주서원 송헌에 서원을 세우고 공을 주벽으로 모시고 그다음 3년만인 1711년(숙종37년)에는 안유(鄭維) 120인(이백 허(李澤夏)·장두(張頭) 등에서 도시식 사당과 호정(淸亭)은 간장)등의 행자와 신발(眞으로 만든 집신)을 가지고 여러날 만에 상경(上京)하여 대궐문 밖에서 송헌서원에 선액(宣額)하여 주기를 호소하였고 1737년(영조13년) 신흥서원(寧善書院)에 묵은 아신생과 동배(同配)하고자 신왕사의 만문으로 침주양묘를 서원하여 전천, 옥천, 연기, 분의, 전의, 괴산등

7읍 향교에 분봉농악 각 향교 선비들이 총결기 하여 국가에 호소하여 합계(合鑑)란 것을 만들었으나 좌절되고 말았고 1818년(순조18년)에 사시(賜諡)운동을 왕유 이병의(李秉衡)가 장두(狀頭)에 서서 호소 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했다. 청사상언(淸澗上言)의 1절을 추송하여 보면 【신의신자천리과곡 상술외방이거지전(臣矣身登千里奉 迓 相呼 蔽於法苑之前)]이라 하였다. 그 뜻을 풀어보면 신들의 몸이 감히 먼 언 길에 싸게감발로 서로 붙들고 와서 행차 앞에서 호소하여

물부진다. 순조께서 수원에 거둥할 때 법가전(法駕前)서 진소(陳疏)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조에서는 영원 도산은 만고의 도산으로 굳힌것이다. 만일에 이조에서 추증 직계나 사표를 받았다면 왕.이양조(王.李兩朝)에서 직위를 받아 번절신(變節臣)밖에 되지아니하여 충신이라고 할수 있을까? 공의 영령(英靈)께서도 응당 사양사하고 외면하실 것이다. 그 충절은 일월로 더불어 빛을 겨루고 적고 좁은 도산이지만 만고의 수양산과 가지런히 닮다고 청칭하여 수백새를 내리

기도 씻겨지지 아니하여 길이 국가에 봉공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심 되는것이 있어서 경종이 될 것이다. 그 고종대절이 백이숙제에 못지않고 만고의 감심(愍常)을 새워서 양조(麗朝.李朝)의 절의를 붙들은 공의 맹세한 말씀은 숙연히 머리를 숙이게 한다. 영적이 들어나지 아니한 산소가 여러번 병란을 겪어서 쇠한 묘소를 공의 증손 양성공 휘(歐)의 실전한 묘소를 찾다가 인원사공의 지식을 얻어서 다시 실전이 될까 염려하여 표식하기에 불과한 분봉을 하여 두었다가

이씨원조가 가고 중국으로 옮겨갔던 대한민국 정부가 광복한 후 개봉축하고 의포(儀表)석등도 세우고 신도비와 비각을 건립하였고 1976년 충청북도유도회(忠淸北道儒道會) 주최로 이미 철회되었던 송선사원(松泉書院)을 정원군 오창면 양지리(靑原郡 楊倉面 陽地里)에 복설하고 년 1차 유림들이 회장을 올린다. 송선사원에는 공을 주제로 15편을 배정하고 있다.

『孤忠誌 1982년 永春南陽洞에서』

貞簡公.. 領三司事公. 按廉使公時祭 奉行

貞簡公.. 領三司事公. 按廉使公時祭가 지난해 11월 21일(9월 10일 5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정리 현지에서 임축히 거행되었다. 이날 시제는 전날에 내린 눈으로 시제행행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시제행행전에 다행히 눈이 녹아 시제에 지장이 없었다. 시제는 먼저 貞簡公 諱 永熙. 領三司事公 諱 善宗님 단소에 시제를 올린후 按廉使公 諱 士廉 묘소에 시제를 올렸으며 南應

대종의장님과 (提) 대종의고분, 相과가공의장, (郡)방의 대종부외의장등 방계 후손등 200여명이 참제하였고 특히 안렴사공파 수도권종회에서는 버스를 대절 서울지구 참제인원을 수송했다. 음복과 점심식사후 안렴사공파 후손들은 장소를 옮겨 少公 諱 謙. 知州事公 諱 遇周할아버님 시제도 올렸다. 당일인원은 아래와 같다.



◀신도비각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정리 소재)



▶송선사원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 소재)

구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貞簡公	(書) 상 호	(提) 상 천	(按) 재 성
領三司公	(翼) 재 관	(按) 재 만	(按) 재 필
按廉使公	(按) 재 택	(按) 영 원	(按) 광 목



〈안렴사공 시제〉

2009년도 창조내역

- 600,000 수도권종회 • 400,000 신민종회성도단 • 300,000 안동김씨(대종회3회)
- 200,000 익양공파종회, 김포종회, 삼척종회, 영안공파종회
- 100,000 德源(대종회부외장, 黃)대원(파종회), 德善(파종회), 문영공종회, (경주)송공종회, 좌양공종회, 신창공종회, 사직공종회, 흥안공종회성도단 (김포, 성안, 대평, 용주, 대신, 태평, 영주, 광식,
- 50,000 재학공종회, 인선종회, 청주종회, 德善(대원)파종회장 黃(사망)영공종회장, 재남형성종회 회장, (安)재성, 광덕, 태운
- 30,000 성희, 홍식

합계: 4,410,000원

“경축” 안렴사공파종회보발행

안렴사공파 임원일동

- 고 분 : 관목-광기, 태룡-내관
- 명예회장 : 재백-양지
- 회 장 : 영만-진천
- 부 회 장 : 대연-충평, 태분-유지, 성국-도산, 재홍-진천.
- 소윤공종회장 : 흥하-유지
- 좌반공종회장 : 성하-충평
- 감 사 : 성하-괴산, 윤하-도산
- 사무국장 : 홍식-유지
- 재 무 : 재운-양지
- 이 사 : 희운-청안, 동하-충평, 옥식-덕평, 용주-여주, 재성-충평, 대하-괴산, 윤하-청천, 영희-사직, 태선-청안, 권하-내관, 성하-김포, 태하-유지, 영식-광기, 태봉-번동, 영대-발단, 태선-광주, 재득-진천, 재성-양지, 태관-괴산, 재필-청안, 철하-황간, 재산-김천, 예국-도산, 영부-사직.

題字

楮南 金在澤

- 안렴사공 19대은
- 현 대종의고분, 안렴사공파종회명예회장
- 대종의부외장, 안렴사공파종회회장을 역임하였고 서예와 학문에 능하여 문공세 각종 비문등을 짓고 손맛이 많다.
- 주소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417
- ☎043-217-7722 손전화 : 011-464-7726



# 수도권종회 창립 및 경과보고



우리 안렴사공파 수도권종회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용주 총무를 위시한 태영, 관목 성희, 태운이 주동되어 창립을 준비하여 6월 21일 대종회 회의실

에서 영만안렴사공파종회와 장.태운상임부회장 임의회에 30여 명이 모여 전국회의원 태봉씨를 회장으로 추대 발표하였다. 공주 3차대회의 이사와 모임이

있었으며 2009년도에 이사회를 3회 개최한바 있고 지난 6월 13일 서울 특심 서울출세에서는 수도권종회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여인원이 100여명이었다. 창립목적인 회관확보를 위한 성금을 모금함에 힘써까지 조성된금액은 2천4백만원이며

남입약정액은 3천4백만원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안렴사공파 종친은 물론 전국 종친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목표 금액인 10억원이 하루빨리 모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용주총무서지)

## 기금 납부 및 예약현황

- 태봉회장(내남종중포함)
- 태영부회장
- 용주총무이사
- 각 일천만원

계4천7백만원

- 영익이사
- 500만원

- 광복부회장
- 남희부회장
- 태협이사
- 영남감사
- 각300만원

## 按廉使公首都圈宗會結成趣旨文

우리 按廉使公派는 安東金氏 15개파 중에서도 가장 高麗하고 志操가 높은 아름다운 집안으로 손꼽히는 名門집안입니다. 1392년 高麗의 易姓革命이 일어나 朝鮮이 建國되어 수많은 사대이 李太祖의 부름을 받고 달려 갔으나 오직 우리 할아버님만은 不구노그림의 충절을 지켜내신 忠臣으로 유족셨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우리 안렴사공파는 人口面에서도 약 15萬이라는 巨族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中心圈인 서울에 宗親會가 結成되어 뜻하여 항상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종친 및 사담안 모여도 우리가 서울종친회를 구성하고자 이야기하고 다짐하였으나 여건이 許諾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던중 여주 住山君宗會 聖輝종친이 그러면 우선 각 소파 선조님의 入郡地를 순례하고자 제의하여 먼저 안렴사공파 영만장님과 태운 부회장이님에 합류하고 1차로 경기도 연천지역을 관례하고 이어서 충북 영동, 괴산 분관, 증평 남하리, 강원도 삼척, 홍남연기 덕평, 천안 병천 광기, 진천 사석, 일출성, 연기 내관등을 다니며 함께하였습다. 그리던중 진천 선조님 때까지 宗親會長님이신 香田南齋(在均)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야기 했더니 전적으로 찬동하시어 좋 뜻었지만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친여러분 우리 안렴사공 파

아버님은 萬古의 忠臣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자랑스럽기 한이 없으신 할아버님입니다.

일찍이 肅宗大王께서는 一片 隨山 萬古首陽이라 했으며, 우암 송시열선생께서는 忠昭日月 節義山河이라 하시며 그당시 과거성에서 시험문제도 출제하였습다. 또한 易姓革命이 일어나 모두 李太祖께서는 나도 저런 臣下가 행명이라도 있었으면 공주 3차대회의 김사담은 백이 속재와 같은 사람이나 발을 주지 말고 그곳을 도산이라 명하고 포졸하라 하였습다.

또한 안렴사공의 비분을 지으신 金樞 南公權선생은 당시 영의정을 지낸 우리나라 最高의 文章家로 말씀하시기를 觀辭聽聲이 高麗史를 지으며 忠臣들이 모두가 變절이 있는것 처럼 사기에서 빼고 올리지 않고 高麗史를 지으니 어찌 聖上 즉 李太祖의 본심이 그러하게 하였나 라고 말씀하였습다.

종친하는 안렴사공파 종친여러분 우리 안렴사공 할아버님은 생전에 自身의 文籍을 모두 없애고 자취를 감추었으나 元天錫 선생이 지은 화제사건과 정라도 정읍에서 발행한 聖廟神祇 高麗忠臣錄, 成仁錄등 수많은 文獻이 傳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근세에는 서울시 佛道會 모임인 한가락회에서 대종간오신 高麗忠臣들을 찾아다니며 시를 짓고 추모하는데 그중에 우리 안렴사공 묘소인 영묘제도 두 번이나 參拜하였고, 연천 미

산면에 위치한 高麗崇義殿 의 앞산에는 高麗忠臣을 기리는 杜門別 72현봉이 보이는등 참으로 할아버님의 忠節을 말로 다 할수 없다고 하겠습다.

尊敬하는 안렴사공파 종친여러분 우리가 서울 宗親會를 결성하고자 하는 뜻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先祖님들 모신 우리 안렴사공파가 우리나라 首都圈인 서울에 서울宗親會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다. 우리 보다도 종친수가 훨씬 뜻지치는 宗中들도 서울종친회와 會館을 運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동김씨도 익원회, 분은종공파, 서울전경종공파 3개파 정도가 모임을 갖고 會館을 管理運轉하는 등 우리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現實입니다.

한편 우리 안동김씨의 대궐인 익원공파와 宗親들을 자주 만나는데 만남 때마다 안렴사공파도 서울에 宗親會를 構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들을 자주합니다. 그

사담을 말에 의하면 안렴사공파 後孫들이 서울에 많이 살며 經濟의으로도 餘裕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서 익원공파 創立초시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종친하는 종친여러분

오늘우리가 이렇게 뜻을 모아 한자리에 모인 것을 다시한번 淸越드러야 때는 뜻있지만 한번 내다다면서 험하게 전진합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首都圈에서 우리 안렴사공 할아버님 後孫 숫자는 대략 7만 정도로 생각되며 7만의 後孫들이 十數一으로 정성을 드리면 우리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훌륭한 안렴사공 할아버님의 후손됨을 자랑으로 宗親間에 和睦하고 友愛있는 宗親會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首都圈宗親會 進行을 마칠것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安東金氏按廉使公派首都圈宗會長  
金 奎 龍 謹白

## 조상을 섬겨야 하는 이유

고쳐나우에 일과 꽃이 피는 것은 뿌리가 있음이요

새가 공중에 날수 있는 것은 날개에 것이 있는 것이며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은 조상이 세웠기 때문이다

권진자

